

달라몬드를 확보하라!

(아킬라 대신)



실무진 No1. 협상전문 교육기관 네고컨설팅

달라몬드를 확보하라!(아킬라 대신)

당신은 크로케센 왕국의 식량과 농작물을 담당하고 있는 아킬라 대신입니다.

크로케센 왕국은 북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100만 명의 작은 국가로서, 석염(石鹽)이 아주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크로케센 왕국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전쟁이나 심각한 질병, 굶주림 걱정 없이 석염(石鹽)을 가공하여 수출하며 아주 평화롭게 지내왔습니다.

며칠 전 크로케센 왕국의 부토 왕이 당신을 조용히 불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웃 나라인 코토마 왕국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데, 일주일 후면 그 메뚜기 떼가 크로케센 왕국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크로케센의 농업과 식량에 대한 연구를 총 책임지고 있는 미카엘 소장의 보고에 의하면,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과정에서 땅에다 자신의 알을 놓고 가는 데, 이 메뚜기 떼가 알을 놓고 가는 땅에는 5년간 아무런 농작물도 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 메뚜기 떼를 퇴치하지 못하면 당장 올해 농작물 수확량이 70%나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크로케센 왕국 인구의 50%가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국가들도 메뚜기 떼의 피해로 인해 식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메뚜기 떼를 막지 못하면 크로케센 왕국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부토 왕은 모든 비용과 인력, 장비를 지원해 줄 테니 이 메뚜기 떼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덧붙여서 만일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장 파면되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엄포도 놓았습니다.

현재 이 메뚜기 떼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부토 왕, 미카엘 곤충연구소장, 그리고 당신뿐입니다. 이에 부토 왕은 이 메뚜기 떼의 위험성이 알려지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아무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시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미카엘 소장을 찾아가자 미카엘 소장은 이 메뚜기 떼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달라몬드라는 신비의 약물을 고열(高熱)로 가열할 때 생성되는 고체 알갱이를 크로케센 왕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석염(石鹽)과 함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 만든 살충제만으로 퇴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미카엘 소장은 탐험가 존슨 대장이 지중해 탐험 도중 달라몬드를 발견하여 현재 마이타 항구에 정박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구해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미카엘 소장의 조언대로 달라몬드를 구하기 위해 마이타 항구의 존슨 대장의 배로 찾아가자 당신의 라이벌인 기투스 대신도 함께 찾아와 달라몬드를 자신에게 팔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기투스 대신이 서로 달라몬드를 팔라고 하자 존슨 대장은 당신과 기투스 대신 중 누가 달라몬드를 살 것인지 협상을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몇 가지 협상 규칙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기투스 대신의 가문은 당신의 아킬라 가문과는 조상 때부터 서로 앙숙관계의 라이벌 가문으로서, 어려서부터 기투스 가문에게 지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존슨 대장이 제시한 협상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투스 대신과 협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어깨 위에 크로케센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